



편집자의 말

안청시 (편집위원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지난해 6월 30일 창간호 1권 1호를 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리뷰』가 이번에 두 번째로 1권 2호를 펴내게 되었다. 이번 2호를 기획하면서 우리 편집진은 수차례의 토의를 거듭한 끝에 기획주제를 “세계의 중심 이동과 한반도”로 정하였다. 관련 분야를 대표할만한 전문가들에게 집필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주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번 호와 다음 호에 걸쳐 I부와 II부로 나누어 기획시리즈로 다루기로 하였다. 이번 호에는 먼저 6편의 기획논문과 1편의 투고 논문을 합해 7편의 연구논문을 실게 되었다.

권두에 실린 박이문 교수의 논문 「세계의 중심 이동과 동서 철학의 균형」은 문명 변환기의 얇은 총체적 흐름 및 그 바람직한 지향 변화를 철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있다. 박 교수는 “오늘날의 문명사적 문제는 서양의 인간중심적 세계관을 동양의 생태친화적 세계관으로 대체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동서양의 서로 ‘다름’과 ‘우열’ 내지는 ‘선악’을 따지기보다 인류문명의 지속적 발전과 인류의 공존을 위해서는 동서문명의 갈등을 넘어 동서양의 조화와 균형 및 협동체제가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세계의 중심 이동”을 문명사적 관점에서 헤게모니가 이동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임현진 교수의 논문은 세계화의 복합적인 효과가 동북아시아의 지역공동체 형성 가능성에 미치는 새로운 기회 요인 및 위협 요소들을 식별해 내고 있다. 특히 임 교수의 논문은 한국이 — 과거 역사에서 그랬듯 — 문명의 변환과정에서 희생자였던 위치와 입장을 청산하고 새로운 동북아공동체 건설의 주동자 및 글로벌 문화 변용에 창조적 기여자의 일원으로 참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과 함께, 그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추적하고 있어 독자들의 주

목을 끝 만하다.

조영남 교수의 「중국의 법률보급 운동과 통치 엘리트」는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의 기초연구비에 의해 수행된 연구 결과를 집약한 내용으로 중국 정부가 지난 25년간에 걸쳐 대대적으로 추진해 온 의법 통치운동의 목표, 추진 배경과 엘리트 영도하에 이루어진 법률학습의 내용, 과정, 결과 등을 분석하였다. 이 법률보급 운동은 중국의 소위 엘리트 주도형 정치 변화와 제도 개혁의 특성을 이해하는 바탕을 제공한다. 동시에 이 운동은 지난 30여 년간 고강도의 경제성장 달성을 뒷받침해 왔던 상대적 정치안정 기조의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권력 집중의 폐해와 날로 증가하는 대중의 정치참여를 수용하기 어려운 사법제도의 불완전성을 노정하고 정치민주화의 장래를 불투명하게 하는 부작용을 안고 있기도 하다는 점을 저자는 지적한다.

김종길 교수의 「동남아에서의 미·중 경제관계의 변화」는 지난 10여 년간 미국과 중국의 경쟁 및 자본과 자원 이동의 추세를 두 나라가 동남아시아를 상대로 벌여온 경제력 이동 자료들을 통해서 분석했다. 이 논문이 제시하는 자료와 통계들은 동남아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관계는 급속히 부상하는 추세임에 반하여, 미국과 일본의 상대적 쇠퇴가 현저함을 입증해 준다. 이처럼 동남아에 대한 미·중의 경제영향력 격차는 한국의 대 동남아 정책과 대외경제 면에서도 매우 심각한 도전적 요소로 작용할 것임을 김 교수의 분석은 예시해 준다.

배병인 교수는 유로존의 경제적 위기가 주는 국제정치적 함의를 「유로존 출범과 위기의 정치경제: 국제적 요인을 중심으로」를 통해 진단하고 있다. 유럽의 지속되는 재정위기로 말미암아 유로존의 붕괴 가능성을 점치는 시나리오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배 교수는 유로존은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질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정치적 동인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정치적 구조물이며, 이러한 정치경제적 동인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로존의 붕괴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내다본다. 배 교수의 유로존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보다 더 다양한 관점을 통해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는 뒤에 이어지는 김남국 교수의 북리뷰 「유럽연합은 와해될 것인가」와 함께 읽기를 권하는 바이다.

나희량 교수의 기고논문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금융: 소비자 선호체계의 변화를 중심으로」는 말레이시아 내 이슬람금융의 현황, 전망, 확대 추세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최근 말레이시아가 경제 분야에서 이슬람금융의 허브로 떠오르고 있는데다가, 국내 학계의 이슬람금융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극히 제한된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동남아와 여타 이슬람 지역의 경제통합과 금융발전에 대한 연구 관심을 지닌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창간호를 내면서 『아시아리뷰』는 장차 특정 지역이나 주제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문헌 자료 또는 저서들에 대한 종합적 소개와 평론을 겸한 연구 노트, 비평논문 및 북리뷰 등으로도 지면을 넓혀 가기로 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호부터 정규적으로 주요 아시아 관련 문헌들을 소개하는 북리뷰란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호에는 정재호 교수¹와 박철희 교수의 저서²에 대한 한상진 교수와 박영준 교수의 리뷰 글을 각각 실었다. 그리고 김남국 교수의 유럽통합과 유로존 위기의 정치경제를 다룬 네 권의 책³에 대한 내용을 집약하는 서평 원고를 실을 수 있게 되어, 독자들에게 유럽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문명이란 인간 집단의 삶과 얹에 대한 표상과 의미를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대표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본다면, 오늘의 세계는 문명의 무게 중심이 바야흐로 한반도가 지리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 가까운 쪽으로 이동과 변환을 거듭해 오고 있는 결정적 국면(critical juncture)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다. 변환기의 세계 질서는 항상 혼란스러웠다. 한반도는 근대로 편입되는 변환기에 중심부로서의 진출 기회를 한 발 뒤쳐져 놓친 대가를 톡톡히 치루며, 아직도 분단국가라는 변방적 지위를 그 유산으로 안고 있다. 세계정치경제의 무게 중심이 한반도 주변 동아시아 쪽으로 움직여 오고 있는 국면에서 우리

1 정재호,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2 박철희, 『자민당 정권과 전후체제의 변용』(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3 Jean Monnet, *Memoirs*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78). 박재훈·옥우석 역, 『장모네 회고록』(서울: 세림출판, 2008).

Andrew Moravcsik, *The Choice for Europe: Social Purpose and State Power from Messina to Maastricht*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8).

Larry Siedentop, *Democracy in Europ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1).

Jan Zielonka, *Europe as Empire: The Nature of the Enlarged European Un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들이 지구적 변환의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들을 선별·선용하여 변방적 지위를 벗어나 중심을 바라보며 미래를 꿈꾸는 것은 너무도 필요하고 당연하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 이어지는 “세계의 중심 이동과 한반도” 기획시리즈가 우리로 하여금 변방에서 중심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매진해 나가는 길 찾기에 도움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11년 12월